

있듯이 기타 두 대의 독특한 편성을 가진 밴드로 '재즈 스테이션'에서 들려준 어쿠스틱 사운드와 서울재즈아카데미 내에 있는 스튜디오 2 Blue Studio'에서 가진 일렉트릭 사운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모두 놓치기가 아쉬워 그 가운데 진국만을 엄선해 우리 MM 식구들의 다양한 입맛에 맞추고자 하였다. 순조로운 녹음 준비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우리 편집진은 한가지 똑같은 걱정을 가슴에 안고 아무도 모르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레코딩 스케치로...

레코딩 스케치

때는 5월 13일 목요일. 그동안 정들었던 아스노바 스튜디오와 잠시 이별을 하고 '2 Blue Studio' 녹음실을 찾았다. 꽤 오랜 시간 뮤지션의 꿈을 꾸었던 필자는 끝내 뛰어들지 못한 서울재즈아카데미의 첫 방문이었는데, 1층 현관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낸 우리 재즈계를 이끌어 갈 예비 뮤지션들이 대견스러울 뿐더러, 그들의 열정과 도전하는 정신이 한없이 부럽기까지 했다. 셋노란 버리에 자기 뚱뚱한 베이스를 안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연습에 여념이 없는 여학생, 한쪽 구석에서 긴 머리 휘날리며 색소폰을 불어 제끼는 멋진 남학생... (연습실이 아닌 현관 로비였기 때문에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그들 모두가 벌지 않은 어느 날,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키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끝없는 노력 또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뮤지션들에게는 아직 이리나 싶은 시간이었는데도 L. R. D. Band의 멤버들은 벌써 셋팅 작업이 한창이었다. 자, 이제 우리 스텝들이 '걱정'을 밝힐 시간이 되었다. 김홍탁 원상님과 녹음을 맡아 주신 나용희씨와도 반가움과 고마움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문제는 멤버들이었다. 'Hello!' 라 할까, 'Hi!' 를 외쳐볼까, 아니면 나긋하게 'Nice to meet you' 라 할까... 그 순간부터 조심스레 입이 다물어지더니 녹음이 끝날 때까지 가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 뿐 아무 말도 나오질 않는 것이다. 여러분 2000년대가 멀지 않았습니까. 세계로! 미래로! 우리는 분명히 토종 한국인이지만 콩글리쉬를 열심히 익혀줍시다. 원래 녹음실 분위기란 것이 뮤지션들의 연주 모습을 창녀며 하염없이 바라보다, 감탄하다, 모니터를 할 때면 가운데라고 격려도 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얘기도 하면서 그날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 MM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해야 하는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만의 한마디 한마디 대화를 주워 들이고 머리 싸매고 앉아 문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벌써 다음 대화로, 나는 그제서야 속으로만 '아~하 이 얘기였군...' 끝내 천장을 올려다 보며 서글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못난 기자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허나 세계 공통 언어 '눈치' 만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필자이니 지금까지의 레코딩 스케치에 절대 뒤지지 않는 생생한 스케치를 약속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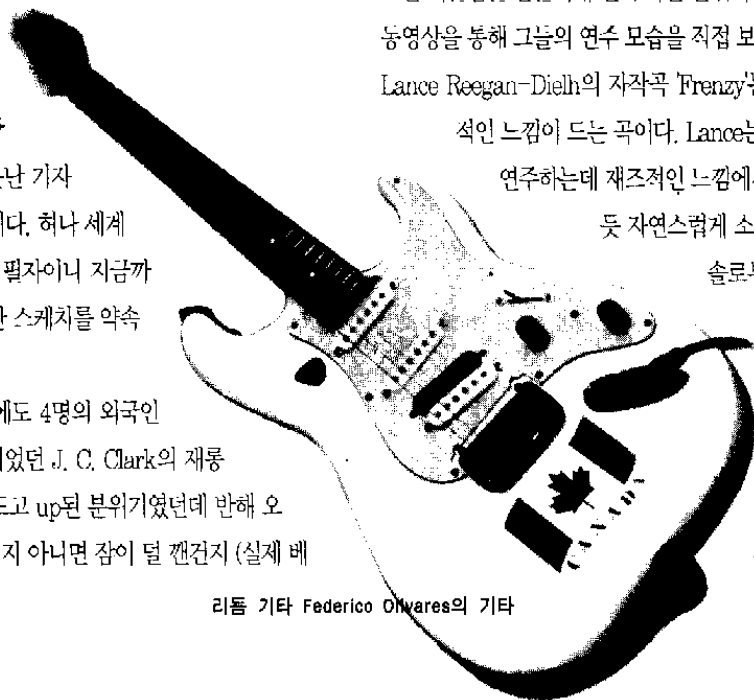
CDplus Vol. 8 '김현정과 4 Spot' 녹음 당시에도 4명의 외국인들이 세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유일한 흑인이었던 J. C. Clark의 재롱과 뛰어난 한국어 실력 때문이었을까 사뭇 들뜨고 up된 분위기였는데 반해 오늘들의 멤버들은 다들 내성적인건지, 쑥스러운건지 아니면 잠이 덜 깬건지 (실제 배

이스인 Blue의 하품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마도 오늘 녹음의 중요성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중함과 진지함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한다. 녹음을 맡아준 나용희씨의 유창한 영어와 솟아오르는 학구열로 녹음을 참관한 많은 엔지니어와 학생들의 어시시트로 녹음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녹음 중에 그들은 재즈 뮤지션다운 두 번의 부탁을 해 왔는데 첫 곡을 녹음 한 후 녹음실의 조명을 낮추어 달라는 것과 두 번째곡을 녹음한 후 서서히 달아오르는 연주 가운데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한 맥주가 그것이었다. 자, 이제 폭발하는 듯한 젊음의 소리인 Frist Guitar와 남미 특유의 청량감 넘치는 라틴 리듬을 전해 주는 Second Guitar의 질묘한 만남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조명을 낮추고 시원한 맥주 한 잔 함께하세요!

듣고 싶은 노래

먼저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곡들을 살펴보자. 오랜 세팅을 마친 후 강렬한 록 스타일의 곡으로 일단 긴장을 풀고 Miles Davis의 'So What' 을 첫 곡으로 본격적인 녹음이 시작되었다. 연주는 라디오 녹음시에 들을 수 있었던 어쿠스틱 사운드 대신 하드 랩적인 요소가 가미된 일렉트릭 사운드로 이루어 졌다. 드럼과 베이스는 유연하고 간결한 연주로 두 기타 사운드를 더욱 돋보이게 해 주었고, Federico Olivares의 리듬기타는 예의 어쿠스틱 사운드와 큰 차이 없이 맑고 청명한 톤으로 곡 전체의 분위기를 받쳐 주었고 Lance Reagan-Dielh은 록적인 강렬한 사운드와 묘한 어울림을 만들어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재즈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곡은 CD의 동영상을 통해 그들의 연주 모습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다.

Lance Reagan-Dielh의 자작곡 'Frenzy'는 블루지한 느낌의 슬로우 템포로 퓨전적인 느낌이 드는 곡이다. Lance는 주테마의 멜로디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연주하는데 재즈적인 느낌에서부터 블루스, 록적인 느낌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특히 고음부의 애절한 슬로우부분이 압권이다. 드럼과 베이스는 싱코 페이션과 변박자를 사용해 지루해질 수 있는 곡의 분위기를 긴장감 있게 끌어 올려 주는데 특히 Dean Payne의 드럼은 각 프레임즈마다 연결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강약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감각적인 연주를 들



리듬 기타 Federico Olivares의 기타